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 현 박 예 진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문화의 낮은 수용성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이는 성소수자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Deitz(2015)의 연구 결과를 국내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반복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20대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1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거부민감성과 정적 상관을,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기대의 간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던 Deitz(201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차별 경험이 국내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해외 선행 연구와 동일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임상 및 상담 현장의 접근법을 논하였다. 또한, 연구 설계 및 표본 추출에 관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소수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심리적 안녕감, 거부민감성, 매개효과

[†] 교신저자: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E-mail: hpack@sungshin.ac.kr

동성애는 모든 시대나 문화에 존재하였으나, 동성애의 역사는 침묵, 검열, 금기 등으로 점철되어 왔다(플로랑스 타마뉴, 2007).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동성애 인권 운동이 진행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였다. 동성애자 인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역사적 흐름으로, 197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DSM-III)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한 것과, 199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성적 지향과 정신적 장애는 다름을 선언한 것을 들 수 있다. 이후로 많은 국가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LGBT)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118개국이 모인 세계정신의학회에서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정신질환이 아님을 밝히는 성명서를 공표하였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6).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적 소재'로 간주된다(박도담, 유성경, 2019). 먼저, 한국에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제화 되지 않고 있다(부산여성신문 2021).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대안으로 동성 간의 파트너십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생활 동반자법¹⁾이 제안되었

지만, 정상가족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²⁾ 또한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보수 개신교 등 종교계의 반발로 1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서울신문, 2020). 성소수자 친화적 법안의 부재에 더해,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원숙연, 20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성애 수용 정도는 2001년에서 2014년 사이에 10점 만점 중 2.8점에 그쳤는데, 이는 OECD 회원인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점수다. 이처럼 동성애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성소수자를 차별 위협에 내몰 수 있음을 의미한다(연합뉴스, 2019). 그리고 편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동일한 외현적 태도 척도를 활용한 연구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연구 참가자들에 비해 한국의 연구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보다 차별적이고 편견적인 태도를 드러내었다(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잘못되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김진이, 2017).

성소수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은 성소수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낙인 이론(Link, 1987, 2004)에 따르면, 사회 수준의 고정관념과 태도는 낙인찍힌 개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험 연구에 따르면 교육, 고용, 가족, 의료와 같은 사회 제도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함으로써 성소수자 개인의 조기 사망이나 장애

1) 혈연이나 혼인관계를 넘어 함께 사는 사람을 생활 동반자로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말한다.

2)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을 말한다.

로 인한 수명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Badgett, 2014). 유럽의 28개국에서 법과 정책 등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가를 비교해 보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성소수자 개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다(Pachankis, 2018).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소수자 수용도를 보이는 국가의 성소수자들에 비해서 낮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성소수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정의

Sue(2010)는 다양성과 소수자 존중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최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차별이나 혐오 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 기존의 측정 방식이 현대의 소수자 혐오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 또는 집단을 향해 적대적, 경멸적, 또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상에서의 언어적, 행동적 및 환경적인 모욕이나 무시다(박도담, 유성경, 2019). 이러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다양한 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 모든 소수자를 상대로 나타날 수 있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이란 'micro(미세)'와 'aggression(공격)'의 합성어로, 미묘한 차별, 미세 공격, 먼지 차별 등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국어 번역은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근거한 개념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학술적 용어로 사용하기 부적절하고, 국내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논의는 매우 초창기 수준이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적절한 번역어 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박도담과 유성경(2019)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는 음을 차용하여 적도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일반적, 개인적, 환경적 차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행위자가 상대의 성적 지향을 알지 않아도 행할 수 있으며, 특정한 개인을 포함한 성소수자 집단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이다.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행위자가 상대의 성적 지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행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 개인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이다.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개인보다는 성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 제도 및 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다. 예를 들어, 본인은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지만 내 아이가 동성애자인 것은 싫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 해당하며, 성소수자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맥락과 관계없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의심하는 것은 개인적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 해당한다. 그리고 타인이 이러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는 환경적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 해당한다.

최근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은 성소수자들의 자존감이나 PTSD와 같은 정신 건강과 만성적으로 관련되며(Platt & Lenzen, 2013), 성소수자가 사회적인 제도 혹은 환경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Woodford, Kulick, Sinco, & Hong, 2014). 일례로, 노숙 경험이 있는 흑인이 경험한 성소수자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인종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우울 증상과 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ttis & Larson, 2017).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동일한 개념을 다른 대상에게 적용한 인종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인종 마이크로어그레션의 경험은 우울, 불안, 세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 등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dal, Griffin, Wong, Hamit, & Rasmus, 2014). 또한 인종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은 문화적 불신³⁾을 거쳐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Kim, Kendall & Cheon, 2017).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혐오와 차별이 아닌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주요 변인으로 두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성소수자에 대한 구조적·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여도, 최근 차별적 언어와 행동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은 지양되는 대신, 마이크로어그레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미묘하고 은밀

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주체와 당하는 객체 모두에게 차별로 인지되기 어렵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일로 간주된다. 하지만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보다 개인의 일생에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박도담, 유성경, 2019). 이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전체적인 양상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어떻게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관찰된다면, 이러한 차이를 어떤 요인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매개 이론적 틀

기존의 성소수자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온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Meyer, 2003)은 성소수자가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더하여 소수자 스트레스까지 경험하므로, 이처럼 가중된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은 낙인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정신 병리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개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Hatzenbuehler (2009)는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반적 스트레스와 내적 소수자 스트레스의 상호관계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리적 매개 이론적

3) 유색인종이 차별 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요 문화(즉, 백인 문화)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말한다.

틀(psychological mediation framework)을 주장하였다. 심리적 매개 이론적 틀은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나 폭력과 같은 객관적인 편견 사건이 일반적 스트레스와 내적 소수자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스트레스는 대처전략/정서조절, 사회/대인관계 및 인지를 의미하며, 내적 소수자 스트레스는 거부에 대한 기대, 정체체성 은폐,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를 의미한다. 이러한 매개 경로를 살펴보면 개인 내 요인에 초점을 둬으로써 임상적 개입 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Deitz(2015)는 Hatzenbuehler(2009)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을 구조방정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거절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준인 거부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f rejection)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할수록 거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졌다. 이러한 완전 매개효과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자체가 심리적 안녕감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거부에 대한 기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부에 대한 기대 대신 상대방의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인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 Downey, 1998)을 측정하였다. 거부에 대한 기대는 성적 지향에 국한된 인지적 판단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반면, 거부민감성은 인지적 측면에 더하여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 Deitz(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Meyer(1995)의 거부에 대한 기대 척도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내려다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등으로, 레즈비언, 게이 및 양성애자가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반면, 거부민감성 척도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난다.',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깊은 관계를 맺기 힘들 것이다.'와 같이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경험은 거부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 더하여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적 지향 이외에 삶의 일상적인 측면에서 거부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거부에 대한 기대 척도가 국내에서 번안 및 타당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번안 및 타당화되어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는 거부민감성 척도를 활용한다면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 또한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거부민감성은 상대방의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거나 거절에 대한 단서에 주의 편향을 보이는 등의 인지적 요소, 거부를 기대하거나 예상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 외로움 및 분노와 같은 감정적 요소, 거부 단서에 대한 적대감, 철회, 공격 등의 반사적이

고 격렬한 과잉반응의 행동적 요소를 포함한다(박명진, 양난미, 2017). 거부민감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애매모호한 거부를 쉽게 의도적 거부로 지각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받는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영향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 가변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거부민감성에 대한 선행 연구(Romero 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에 따르면,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거부에 대한 인지적 사회 학습이력에 따라 거부민감성의 수준은 변화 가능하다. 즉, 개인은 사회적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적 동기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거부민감성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거부민감성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부적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e.g., Feinstein, 2012, 2019; Liu, Kraines, Massing-Schaffer, & Alloy, 2014; Pachankis, 2014).

연구 개관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에게 주어지는 미세하고 은밀한 형태의 차별인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현대의 주요한 차별로 가정하며, 이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인을 다룬 선행 연구(Deitz, 2015)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기대가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을 대입하여 국내 성소수자들에게서 거부 관련 변인이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반복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문제 1.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거부민감성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유의할 것인가?

가설 1-1.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과 거부민감성은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1-2.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은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1-3.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2.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인가?

가설 2.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성소수자 중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를 연구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성별에 포함되지 않는 간성, 생물학적 성별과 정체화한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스펙트럼, 그리고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퀴어(Queer)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로맨틱한 혹은 성적인 끌림을 경험하거나 성적인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유성애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이성애자를 제외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성애자는 동성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이들로, 남성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남성을 게이, 여성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여성은 레즈비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성애자는 이성과 동성에게 모두 끌림을 경험하며, 범성애자는 성적 지향에 제한되지 않고 끌림을 경험하는 성적 지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우 유성애를 기본 전제로 설정하였으므로 타인에 대해서 로맨틱한 혹은 성적인 끌림을 경험하지 않는 무성애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 참가자에게 성적 지향 이외에도 성별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접근하기 용이한 이들을 표본으로 추출하기 위해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대를 20대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가자 모집에 앞서 G*Power 3.1을 사용하여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 및 편견과는 달리 미세한 차별로 일컬어지므로 작은 효과크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효과크기를 0.06, 유의수준은 .05, 검정력은 .80로 설정하여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 총 128명의 연구 참가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불성실한 응답이나, 연구 도중 참여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160명의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 및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트위터에 연구 참가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거주 20대 비이성애 유성애자 총 16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명을 제외하고 총 1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Woodford, Chonody, Kulick, Brennan과 Renn (2015)이 개발한 대학 내 LGBT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LGBT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LGBT-MCS)를 박도담, 유성경(2019)이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SOM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예: ‘레즈비언, 게이, 바이 또는 퀴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혹은 넌지시 들은 적이 있다’),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예: ‘레즈비언, 게이, 바이 혹은 퀴어 같은 행동을 덜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예: ‘지인이나 단체가 소셜 미디어(예: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는 내용이나 광고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접한 적이 있다’)의 3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본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들과 반응 단계수가 다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참가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1: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5: 매우 자주 경험했다).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도담, 유성경(201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는 .93이었다.

거부민감성 척도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RSQ)를 박명진(2017)이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인 초기에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염려되거나 불안한지의 여부를 예기분노(예: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예기불안(예: '배신당하거나 버려질까 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과잉반응(예: '거부당할까 봐 관계를 먼저 끊으려는 경향이 있다') 및 거부 지각(예: '내 앞에서 문을 뿜 닫고 나간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든다')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명진(201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긍정기능 척도(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 Scale)를 조운주(2006)가 번안한 심리적 안녕감 단축형 척도(PWBS-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율성(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에 자신 있다'), 타인과의 긍정적

인 관계(예: '사람들은 나를 배풀고,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목표(예: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환경에 대한 지배감(예: '나는 일상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 개인적 성장(예: '나에게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및 자아 수용(예: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이 마음에 든다')의 6개 하위요인으로 측정하며, 하위 요인 당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운주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0,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

연구 참가자는 설문에 응답하기에 앞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선별 문항에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 종료에 앞서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드러내기 수준, 종교, 월평균 소득, 최종학력을 수집하였다. 성별은 여성, 남성, 간성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성별 정체성은 시스템더, 트랜스젠더, 이외의 성별 정체성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이성애자, 이외의 성적 지향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이성애자나 무성애자라고 응답하는 경우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개인이 설문

링크를 통해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가자가 설문에 응답하기 앞서 연구 문제를 아는 것이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에 대한 사전 설명문에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 경험에 대한 연구로 연구의 주제를 간략히 제시하였으며, 사후 설명문에 상세한 연구 목적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설문 작성 전과 작성 완료 후 두 번에 걸쳐 연구 참가자들이 자료 수집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법률에 따라 파기됨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모바일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성소수자 연구의 특성 상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연구 참가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단체에 동일한 금액을 후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대안을 선택한 연구 참가자에 한하여 성소수자 단체에 후원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로, 척도별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2012)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번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가자는 총 158명으로, 성별은 남성 15.2%(24명), 여성 84.3%(133명) 및 간성 0.6%(1명)였다. 성별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는 시스젠더가 74.7%(118명),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가 12.0%(19명), 이외의 성별 정체성이 13.3%(21명)였으며, 성적 지향은 동성애자 31.6%(50명), 양성애자 39.2%(62명), 범성애자 20.9%(33명), 이외의 성적 지향이 8.2%(13명)였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낸 수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5.1%(8명), ‘25% 정도의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55.1%(87명), ‘50% 정도의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19.6%(31명), ‘75% 정도의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15.8%(25명),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4.4%(7명)였다. 종교의 경우, 종교 없음이 72.2%(114명), 종교 있음이 27.8%(44명)였고, 종교가 있는 연구 참가자들 가운데 기독교는 9.5%(15명), 천주교는 10.1%(16명), 불교는 7.0%(11명), 기타는 1.3%(2명)였다. 월평균 순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78.5%(124명),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1.4%(18명),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7.0%(11명),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1.9%(3명), 400만원~500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58)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24	15.2
	여성	133	84.3
	간성	1	0.6
성별 정체성	시스젠더	118	74.4
	트랜스젠더	19	12.0
	이외의 성별 정체성	21	13.3
성적 지향	동성애자	50	31.6
	양성애자	62	39.2
	범성애자	33	20.9
	이외의 성적 지향	13	8.2
드러내기	전혀 드러내지 않음	8	5.1
	25% 정도의 사람에게 드러냄	87	55.1
	50% 정도의 사람에게 드러냄	31	19.6
	75% 정도의 사람에게 드러냄	25	15.8
	모든 사람에게 드러냄	7	4.4
종교	기독교	15	9.5
	천주교	16	10.1
	불교	11	7.0
	기타	2	1.3
	무교	114	72.2
월평균 순소득	100만원 미만	124	78.5
	100~200만원	18	11.4
	200~300만원	11	7.0
	300~400만원	3	1.9
	400~500만원	1	0.6
	500만원 이상	1	0.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0.6
	고등학교 졸업	119	75.3
	대학교 졸업	34	21.5
	대학원 졸업 이상	4	2.5

만원 미만이 0.6%(1명),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0.6%(1명)였다.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가 0.6%(1명), 고등학교 졸업이 75.3%(119명), 대학교 졸업이 21.5%(34명),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2.5%(4명)였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가운데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M=3.41$, $SD=0.60$)이 가장 높았으며, 거부민감성($M=3.04$, $SD=0.80$)과 성적 지향 마이

크로어그레션($M=2.50$, $SD=0.75$)이 그 뒤를 이었다.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거부민감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11$, $p=.008$),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534$, $p<.001$). 그러나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113$, $p=.158$).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표 2.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거부민감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158$)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거부민감성	.211 **		
심리적 안녕감	-.113	-.534 ***	
평균(M)	2.50	3.04	3.41
표준편차(SD)	.75	.80	.60

* $p<.05$ ** $p<.01$ *** $p<.001$.

표 3.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경로	B	se	t
1단계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 거부민감성	.225	.084	2.692**
2단계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 심리적 안녕감	-.091	.064	-1.419
3단계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 심리적 안녕감	-.000	.056	-.006
	거부민감성 → 심리적 안녕감	-.403	.052	-7.68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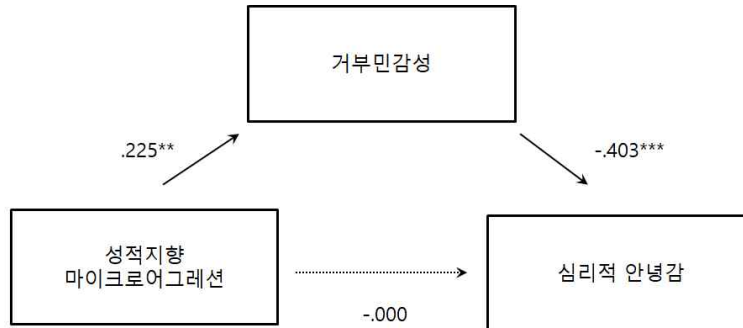


그림 1.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완전매개모형
 * $p < .05$. ** $p < .01$. *** $p < .001$. (bootstrapped) indirect effect = $-.091$, 95% CI: $[-.1715, -.0217]$

표 4.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예측변수(a)	매개변수(b)	준거변수(c)	직접효과	간접효과 [bootstrapping CI 95%]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000	-.091[-.1715 ~ -.0217]

* $p < .05$ ** $p < .01$ *** $p < .001$.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번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거부민감성의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 = .225$, $F = 7.250$, $R^2 = .044$, $p = .008$). 2단계에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다($B = -.091$, $p = .158$). 3단계에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나($B = -.000$, $p = .995$),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 = -.403$, $p < .001$). 즉,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자료로부터 무선적으로 형성된 10,000개의 표본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으며,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을 때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거부민감성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91$, CI[-.1715 ~ -.021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심리적 안녕감 및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거부민감성과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여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즉,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많이 경험할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았으며,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낮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성소수자 연구 모델인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Meyer, 2003)을 벗어나, Hatzenbuehler (2009)가 주장한 심리적 매개 이론적 틀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심리적 매개 틀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심리적 매개 과정에 집중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정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부민감성이라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예측변인이 ‘어떻게’ 또는 ‘왜’ 준거변인을 예측, 또는 야기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 매개변인은 바로 그 ‘어떻게’와 ‘왜’에 해당된다. 따라서 매개변인을 알게 된다면 예측

변인이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서영석, 2010). 분석 결과,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거부민감성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면, 심리적 매개 이론적 틀(Hatzenbuehler, 200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나 폭력과 같은 객관적인 편견 사건은 내적 소수자 스트레스, 즉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접적인 차별이나 편견적인 언행과는 달리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미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소수자는 이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일 정도로 판단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가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개인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성소수자 개인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사회의 거부 신호를 지속적으로 되새기게 된다. 따라서 성소수자 개인은 사회적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방어적 동기 상태를 보이고, 이로 인해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Feinstein, 2019에서 재인용). 높아진 거부민감성은 일상에서 거부를 더 많이 지각하고 거부에 강하게 반응하게 하며 불안과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는 등의 인지적, 행동적 및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반복되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낮아질 수 있다.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거부민감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고리

를 끊기 위해서는 임상가와 상담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성소수자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임상가와 상담가는 한국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감수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내담자의 상황을 단순한 내담자 개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내담자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불어 임상가와 상담가는 자신이 내담자에게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하며, 내담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Nadal et al., 2014).

또한 임상가와 상담가는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처하는 방안을 교육하거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함께 함으로써 마이크로어그레션의 경험 자체에 개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adal(2010)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겪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단계의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정말로 일어났는가?’이다. 성소수자 개인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대개 자신의 직감을 믿으면 되지만, 종종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타인에게 물어봄으로써 이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때 타인은 현장에 있는 주변인이 될 수 있으며,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임상가나 상담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반응해야 하는가?’이다.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반응함으로써 얻는 위험과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위험을 서로 비교하여 반응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만약

반응하여 얻는 피해가 크거나 신체적 위협을 받는다면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임상가와 상담가는 반응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함께 하거나 판단 기준을 세워봄으로써 내담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반응할 것인가?’이다.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반응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임상가와 상담가는 내담자가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반응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것과 같이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임상가와 상담가는 거부민감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대처전략을 사용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절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적대적이고 분노한 감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Ayduk, Mischel, & Downey, 2002), 전략적 주의 배치는 거부민감성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Ayduk, Mendoza-Denton, Mischel, Downey, Peake, & Rodriguez., 2000). 또한 거부에 대한 판단을 늦추고, 맥락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자기 통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김나영, 2009). 따라서 임상가나 상담가는 성소수자 내담자로 하여금 전략적 주의 배치와 자기 통제 전략 등을 통해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건설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완전 매개효과를 반복검증하였다는 데 그 두 번째

의의가 있다. 문화는 성소수자의 수용과 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Bhugra, 2018),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수용과 거부에 대한 수준이 다른 미국의 연구 결과(Deitz, 2015)와 일관된 결과를 관찰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를 국내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심리적 매개 이론적 틀(Hatzenbuehler, 2009)이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이성에 중심적인 사회로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하지만 두 문화 모두에서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자체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으로 인해 성소수자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거부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등의 내적 소수자 스트레스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atzenbuehler(2009)의 심리적 매개 이론적 틀에서 효과적인 임상적 개입 방식을 강조하는 것에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성에 권력과 제도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성소수자의 희생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동성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통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

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개인은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행동적 변화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Meyer(1995)의 연구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거부에 대한 기대 척도는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얼마나 거부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를 측정하므로 성소수자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부에 대한 기대가 아닌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거부에 대한 기대와 거부민감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차별이나 편견이 성소수자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거부에 대한 기대 척도를 국내 상황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하고 거부민감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가자가 20대로 한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성소수자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소수자는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존재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더욱 많은 거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대가 높은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거부민감성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효과 크기가 클 수 있다. 혹은 연령대가 높은 성소수자들은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을 경험하였으므로, 미세하고 은밀한 차

별인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거부의 경험으로 인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거부민감성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의 효과 크기가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참가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24명과 여성 133명으로 여성 연구 참가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연구를 홍보하였고, 해당 커뮤니티를 통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각 변인에 대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여 성별과 성별정체성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표본의 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성별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여성 연구 참가자의 경향성으로 추론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성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는 다양한 성별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연구 참가자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SOMS)의 문항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인 사람들은 그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넌지시 들은 적이 있다'와 같이 특정한 성적 지향에 국한되어, 간성, 트랜스젠더 등의 연구 참가자들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을 수 있었다. 이들이 겪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성적 지향 이외에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 경험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성애, 범성애, 기타의 성적 지향을 가진 연구 참가자의 경우에도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겹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등과 같이 동성애에 국한된 문항에 답해야 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사용할 때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등 다르게 명명되는 성적 지향에 대해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SOMS)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 무성애자를 포함한다면 보다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거부민감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횡단적 설계를 통해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인과적 영향 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거부민감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2019.04.01). 성소수자에 폐쇄적인 한국...OECD 중 터키·발트3국 이어 하위권. Retrieved from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31034700002?input=1195m>.
-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화 (2020.06.30). 성적 지향 최대 변수... 14년째 제자리걸음 차별금지법 국회 문턱 넘나.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1006010&wlog_tag3=naver
-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605-634.
- 남궁미, 박정은 (2020).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469-1498.
- 류혜라, 박기환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 박도담, 유성경 (2019).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그레션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99-927.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부산여성신문. (2021.03.31.).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차별금지법.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bswoman/222293698424>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6.0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 인권/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 Retrieved from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26566
- 원숙연 (2017).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51(3), 225-256.
-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43-362.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임정민, 오경자 (2016).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2), 183-195.
- 조윤주 (2006). 생산적 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플로랑스 타마뉴 (2007). 동성애의 역사. 이마고.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Ayduk, O., Mischel, W., & Downey, G. (2002). Attentional mechanisms linking rejection to hostile reactivity: The role of “hot” versus “cool” focus. *Psychological Science*, 13(5), 443-448.
- Badgett, M. V. (2014). The economic cost of

- stigma and the exclusion of LGBT people: A case study of India. World Bank, Washington, DC. Retrieved from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21515>
- Bhugra, D. (2018). Sexual variation and mental health.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72*(1), 27-29.
- Deitz, C. E. (2015).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mediational mode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Saint Louis.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Feinstein, B. A. (2019). The rejection sensitivity model 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xual minority mental heal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9*(7), 2247-2258.
- Feinstein, B. A., Goldfried, M. R., & Davila,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lesbians and gay men: An examination of internalized homonega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as potential mechanis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0*(5), 917-927.
- Gattis, M. N., & Larson, A. (2017). Perceived microaggressions and mental health in a sample of black youths experiencing homelessness. *Social Work Research, 41*(1), 7-17.
- Hatzenbuehler, M. L. (2009). How does sexual minority stigma "get under the skin"? A psychological mediation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35*(5), 707-730.
- Hernandez, R. J. & Villous, M. T. (2019). Overcoming racial battle fatigue: The associations between racial microaggressions, coping, and mental health among Chicana/o and Latina/o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6*(3), 399-411.
- Kim, P. Y., Kendall, D. L., & Cheon, H. S. (2017). Racial microaggressions, cultural mistrust, and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7*(6), 663-670.
- Lewis, N. M. (2009). Mental health in sexual minorities: Recent indicators, trend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lac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Health & Place, 15*(4), 1029-1045.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363-385.
- Liu, R. T., Kraines, M. A., Massing-Schaffer, M., & Alloy, L. B. (2014).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Mediation by stress generation.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7*(1), 86-97.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Nadal, K. L. (2010). Responding to racial,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in the

- workplace. In M. Paludi, E. DeSouza, & C. Paludi Jr. (Eds.), *The Praeger handbook o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workplace discrimination: Legal,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 perspectives* (pp. 23-32). Santa Barbara, CA: Praeger.
- Nadal, K. L., Griffin, K. E., Wong, Y., Hamit, S., & Rasmus, M. (2014). The impact of racial microaggressions on mental health: Counseling implications for clients of co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2*(1), 57-66.
- Pachankis, J. E., & Branstrom, R. (2018). Hidden from happiness: Structural stigma, sexual orientation concealment, and life satisfaction across 28 countr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6*(5), 403-415.
- Pachankis, J. E., Hatzenbuehler, M. L., Hickson, F., Weatherburn, P., Berg, R. C., Marcus, U., & Schmidt, A. J. (2015). Hidden from health: structural stigma, sexual orientation concealment, and HIV across 38 countries in the European MSM Internet Survey. *AIDS, 29*(10), 1239-1246.
- Pachankis, J. E., Hatzenbuehler, M. L., & Starks, T. J. (2014). The influence of structural stigma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young sexual minority men's daily tobacco and alcohol use. *Social Science & Medicine, 103*(C), 67-75.
- Platt, L. F., & Lenzen, A. L. (2013).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and the experience of sexual minorities. *Journal of Homosexuality, 60*(7), 1011-1034.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Woodford, M. R., Chonody, J. M., Kulick, A., Brennan, D. J., & Renn, K. (2015). The LGBT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62*(12), 1660-1687.
- Woodford, M. R., Kulick, A., Sinco, B. R., & Hong, J. S. (2014). Contemporary heterosexism on campu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LGBTQ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accepta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4*(5), 519-529.

1차원고접수 : 2021. 08. 09.

심사통과접수 : 2021. 08. 23.

최종원고접수 : 2021. 09. 30.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Sexual Minorities: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Hyun Ko

Yejin Park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low acceptance of sexual minorities in Korean culture promote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em, which can negatively affect their mental health. Therefore, we attempted to replicate Deitz (2015), which investigated the mediation effect of expecting rejection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this end,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158 Korean gay, lesbian, bisexual and pansexual in their twent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ereas rejection sensi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negatively correlated.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not significant. Furthermore, the indirect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found significant, but that the direct effect of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not.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ose found in Deitz (2015), which showed only the indirect effect of expecting rejection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chanism of how discrimination experience affects mental health is the same in cultures with different acceptance levels of sexual minoriti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for clinic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that could help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mental health of sexual minoriti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is presented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in terms of research design and sampling.

Key words : sexual minorities,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rejection sensitivity, mediation effect